

일본화된 한국인의 이지러진 母國체험

일본 '芥川賞' 받은 李良枝의 「由熙」를 읽고

任軒永

문학평론가

제100회 '아쿠다가와상' 수상작가가 된 이양지의 작품집 「由熙」에는 5편의 소설이 실려 있다. 이 가운데 좌절당한 예술가의 고뇌와 사랑을 그린 「Y의 초상」과 산업사회의 일그러진 인간문제를 다룬 「푸른 바람」을 빼놓아 나머지 세 편은 모두 재일동포의 찢긴 삶을 주제로 삼고 있다. 여기서는 재일동포를 다룬 세 편을 중심으로 한 민족의식에 초점을 맞춰 이양지 소설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발표시대순으로 보면 이양지는 「나비타령」(1982), 「해녀」(1983)에 이어 「유희」(1988)를 쓴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유희」 이전의 작품은 이 작가가 한국유학을 오기 전에 썼던 것으로 모국의 체험 이후에 쓴 「유희」와는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나비타령」은 재일동포 부부가 별거를 하면서 오랫동안 이혼소송을 진행시키고 있는 속에서 네 자매들이 겪는 소외와 異邦感을 파고든다. 아들은 아버지편에, 딸은 어머니편에서 서로가 유리한 조건에서 이혼을 합법화시키려는 긴 송사는 10여년을 끄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과정 속에서 가즈오(和男)는 식물인간이 되었다가 죽어가며, 데짱(哲君)은 역 화장실에서 시체로 발견된다. 주인공 아이꼬(愛子)는 이런 갈기갈기 찢긴 삶 속에서 가출하여 여관종업원 생활을 하는가 하면 20여세 연상인 일본인 기혼자 마쓰모도(松本)와 정신과 육체가 일치된 애정의 극치를 경험하는 등 생활의 궤적을 잃고 방향을 지속한다. 그녀는 어디를 가나 이방의식에서 헤어날 수 없는 채 고뇌의 늪을 허우적이다가 끝내는 한국을 찾게 된다.

재일동포가 한국에서 느끼는 異邦의식

그녀가 한국에 가는 것은 “가야금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판소리도 하고 싶어요”란 말로 알 수 있듯이 핏속에 흐르는 정서적 본능을 따른 것으로 밝혀진다. 그것은 모국을 찾는다고 보다는 “일본에서 도망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일본을 버리게 했는가에 대한 까닭은 작품 전편을 흐르는 “조선(朝鮮)에 대한 편견들 때문임을 읽을 수 있다(290, 294, 296, 302, 303, 312쪽 참조). 아이꼬는 대담하게 아버지가 왜 귀화했느냐고 물으며 “그렇게도 일본이 좋아? 일본 여자가 좋아?”라고 따진다. 그녀는 유일한 애인인 마쓰모도에게 “아이꼬”가 아닌 “김애자”

종래 재일동포 작가들이 즐겨 다루었던

정치·경제적 문제와는 달리

이양지의 「由熙」에서는 인간의 내면적

갈등이 가장 큰 과제로 부각된다.

이양지가 추구하는 것은

가난에 찌든 재일동포 1세대 때의

생존문제가 아니라, 이미 산업사회의

풍요를 구가하는 나라에서 느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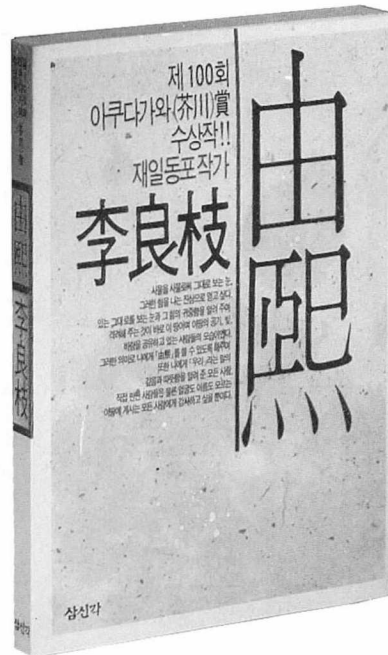
정신적 異邦의식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분히 중산층적이다.

라고 불러달라고 말하며, 한국에 와서 가야금을 배우나 이방감은 쉬 사라지지 않는다.

「해녀」에 이르면 계모와 그녀가 데려온 언니가 한국인으로 등장하며, 그 이유 때문에 얼마나 두 모녀의 삶이 참담해져버렸는가를 읽을 수 있다. “언니는 용모도 아름답고, 학교성적도 좋았”으나 이방감에 침몰당한 채 피해대상층에 사로잡힌다. “또다시 간또오(關東)대지진과 같은 큰 지진이 일어난다면, 한국인들은 확실하게 될지 모르겠죠?”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그녀는 가출하여 젊은 여성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밑바닥을 헤매다가 끝내는 죽음으로 치닫는다. 그녀의 아버지는 제주도로 떠나버렸다는 말이 얼핏 스치는데, 이것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암시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해녀」에서 이양지가 추적하는 것은 가난에 찌들어 생존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던 재일동포 제1세대 때의 학대의 양상이 아니라, 이미 산업사회의 풍요를 구가하는 나라에서 그 정신적 풍토만은 식민지 시대의 것을 그대로 온존시키고 있는 사회구조에서의 인간 소외의식의 문제이다.

재일동포 작가들이 다루었던 경제적·정치적 문제와는 달리, 이양지에 이르면 그 고뇌의 바탕에는 인간의 내면적 갈등이 가장 큰 과제로 부각됨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인지 이들 등장인물들에게는 예외없이 술과 남녀관계의 난잡함, 죽음의 문제에 대한 과감한 도전 등이 공통적으로 나온다. 그녀들은 모두 술과 남성의 육체에 탐닉하면서 당장의 괴로움으로부터 탈출구를 마련하려 하나, 거역가 그나마도 실패와 좌절로 끝난다. 순간적인 쾌락과



마취는 또다른 고뇌를 키우는 작용만 하게 되어 결국은 죽음의 문턱에 자신을 맡기게 된다.

「나비타령」의 아이꼬가 한국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삶의 자세를 갖추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양지가 한국체험을 바탕으로 쓴 「由熙」에 이르면 오히려 그 게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유희는 S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는 유학생인데, 일본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배다른 형제가 셋이나 있는 집안 출신이다. 이양지 소설의 특징이기도 하듯이 유희 역시 가정이 한번 이상은 파탄된 집안에서 자랐다. 일본에서 한국을 동경하며 왔으나 그녀가 정착 모국에서 겪는 것은 또다른 이방의식이었다. 그녀는 “시험이 있기 전과 제출해야 할 리포트가 있을 때 이외는 거의 한글은 쓰지도 않았고, 읽지도 않았다. 유희 방의 책장에는 대학에서 쓰는 교과서와 자료 말고는 모두 일본어로 된 책이 꽂혀 있었다”.

“4학년이 되었는데 졸업도 못한 채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어버린 그녀의 모국생활은 “이 나라 사람”이라는 의식이 밀도 짙게 배어들지 않는 영원한 이방감 그것이었다. “일본사람은 역시 용서할 수 없고 싫어”라는 유희는 한국에 대해서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는 결론에 이르고 만다. 그녀는 “이 나라에 접근하려는 노력으로 이겨내려 한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일본어 쪽으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었다. 일본어를 씌으로써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안심시키고 위로하기도 하며, 또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각과 흥분을 일

본어로 생각하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학교에서나 거리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한국어가 나에게서 최루탄과 마찬가지로 자꾸만 들리는 거예요. 맵고, 쓰고, 들뜨고, 듣기만 해도 숨막혀요. 하숙엘 가도 내가 싫어하는 한국어를 쓰고 있었죠”라고 말한다.

韓日 양국의 중산층적 가치관 교차돼

이런 유희가 지닌 한국기피증의 심층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일본에서 한국인에게 속아 사업에 실패했다는 등의 파편들이 깔려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미 산업사회화 질서 속에서 안온하게 길들여진 삶을 영위해온 생활의 기반바탕 타이라 볼 수 있다. 「나비타령」이나 「해녀」에 나오는 여인상의 연장선에서 유희라는 여학생을 본다면 그 결과와 전망은 너무나 명백히 밝혀진다. 고도산업사회의 가치관과 질서 속에서 길들여진 상태에서 겪게 되는 한국에서의 생활은 유희 같은 여인으로 하여금 보수와 진보의 혼재된 가치의 전도현상을 경험할 수 밖에 없게 한다. 왜 그녀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울면서 목적지까지 가지 못한 채 도중하차해버렸는가에 대한 뚜렷한 설명을 내릴 수가 없는데, 이 한가지가 유희의 모든 행동반경을 상징해준다. 그녀는 대금을 비롯한 민속악기를 배우면서 한국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가장 비정칙적인 모국애의 발상법이라 하겠다.

그녀는 한국인이 곧잘 손을 잡고 걸어다니는 것을 비롯해서 한글은 어찌서 가로쓰기를 하게 되어버렸는가란 문제에 이르기까지 실상 우리 생활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소한 문제들을 제기하여 일본 중산층적 가치관으로 한국을 평가하려는 자세를 버리지 못한다. 이미 그녀는 일본화된 한국인이었고, 오늘의 한국이 그녀를 한국화시키기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나 일본화되어버렸음을 이 소설은 느끼게 만든다. 하숙을 여러번 옮기면서도 정들 만한 상대를 찾지 못하다가 만나게 된 바위산 밑 동네의 ‘언니와 아주머니’는 그녀에 대하여 “한국에 와서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나쁜 면 밖에는 눈에 띄지 않게 됐던 거야.…… 나 같아도 같은 나라 사람이지만 유희처럼 이사해버리고 싶어졌을지 몰라”라고 동조한다. 어김없는 일본과 한국의 중산층적 관점에서 엮어내는 오늘의 한국 사회 진단서라 하겠다.